

<http://dx.doi.org/10.20880/kler.2016.51.1.217>

문맥 인식과 표상 방식에 대한 사례 연구 —단락 중심의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서종훈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I. 들머리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 IV. 연구결과 및 교육적 의의
- V. 마무리

I. 들머리

글을 읽고 표현한다는 것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중의 하나이다. 오직 인간만이 상징적인 기호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아울러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상당한 정도의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재귀적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특히 텍스트 이해와 산출의 재귀적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표상이 수반된다. 어떤 형태로든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은 독자나 필자의 머릿속 구체적 형상화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표상의 구체적인 도출 과정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독자나 필자의 공통으로 합의될 수 있는 형태로 도출되기 어렵다. 각 독자나 필자가 지니는 텍스트 이해와 산출의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어교육 현장에서는 반드시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과정, 특히 이해의 과정에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의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여러 방법이나 전략이 동원된다. 대표적으로 요약하기, 주제문 찾기나 구성하기 등이 활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나 전략은 독자의 구체적인 이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이해 결과에 대한 비판적이고 면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습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동원하는 지식이나 전략은 다양하다. 특히 텍스트 전체를 조망하고 핵심 내용이 텍스트 전체에 어떻게 걸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해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는 글을 전개하는 과정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른바 텍스트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표상하느냐의 문제는 이해와 표현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텍스트 이해와 산출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머릿속 기억의 궤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즉 본고는 텍스트의 흐름, 이른바 문맥이라는 대상을 초점에 두고 이를 학습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표상하는지의 문제를 현장 연구조사의 관점에서 다룬다. 이를 위해서 일정한 연구가설과 이에 대한 현장조사, 그리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교육적 결과와 의의를 이끌어 낸다.

II. 이론적 배경

글의 흐름, 이른바 문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고나 언어 수행상의 단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맥은 그것 자체로는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이다.¹ 즉 독자나 필자가 추상적 실체인 문맥을 실시간으로 자각하면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데에는 텍스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의미상의 단서나 문맥상의 지표가 요구된다.

1 통상 학교 현장에서는 맥락(context)으로 읽기와 쓰기의 내·외적 측면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는 범위를 좁혀 텍스트 내적인 측면인 문맥(co-text)에 초점을 맞춘다. 읽기 및 쓰기와 관련된 맥락에 대해서는 최명원(2002), 이재기(2006), 김혜정(2009), 박정진 외(2009), 김슬옹(2012) 등이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이러한 단서나 지표가 텍스트 표면에 직접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독자나 필자가 스스로 생성하거나 구성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매우 복잡한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심각한 인지적 부담을 가져온다. 따라서 문맥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표상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맥이 지니는 추상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문맥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응집성(cohesion)과 통일성(coherence)의 속성을 바탕으로 한다. 응집성이 통사결속, 통일성이 의미연결의 차원이라면, 문맥은 일반적으로 의미연결의 관점에서 그 실체가 구체화될 수 있다. 텍스트가 의미의 씨줄과 날줄로 짜인 하나의 그물짜임이라면 의미연결의 표상 문제도 이러한 씨줄과 날줄이 부각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학습자들이 문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표상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되는 이론적 배경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²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맥이라는 추상적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안과 이에 직결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 본고는 단락 간 의미연결에 대한 인식과 표상이 구체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단락 간 의미연결에 대한 인식은 텍스트의 통일성(coherence)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 전략이다. 이는 텍스트의 총체적 의미연결, 이른바 텍스트의 거시구조를 이해하는 주요한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문맥이라는 추상적인 흐름을 단락 간 의미연결에 대한 인식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산출 양상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문맥이라는 실체를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단락 간 의미연결에 대한 인식만으로 텍스트 문맥에

² 박수자(2009)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지도에서 문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참조가 된다. 특히 여기에서는 빈칸 메우기가 주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한 추상성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단락 간 의미연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와 산출의 적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정보관계와 그에 부합하는 각각의 도식화 방식을 구성하였다.

먼저 두 가지 정보관계는 선형관계(linear relation)와 계층관계(hierarchical relation)이다. 선형관계는 단락 간 연속적 흐름의 인식에 초점을 둔 것이고, 계층관계는 단락 간 의미 위계의 흐름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인식의 문제를 이른바 의미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로 상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선형관계에 적용되는 도식화는 중심화 이론을 적용한 ‘좌표 평면’ 형상이며, 계층관계에 적용된 도식화는 ‘나무-그림’ 형상이다. 선형관계의 경우는 중심화 이론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문장 간 대명사 생략의 복원의 문제를 다룬 전산언어학의 이론이다.³ 본고는 이를 단락 간에 응용하여 단락 간 의미연결의 등급화를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단락 간 의미의 흐름을 구체화하였다. 두 가지 정보관계에 대한 도식화 예는 아래와 같다.

3 Walker, Marilyn 외(1998)는 중심화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물이다. 이는 중심화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고, 아울러 몇몇 언어에 그 이론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 중심화 이론에 대한 주요한 참고가 된다. 대명사의 언급과 생략 등을 통해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중심화 전이의 양상에서 연속(continue), 유보(retain), 완만한 전환(smooth-shift), 급격한 전환(rough-shift)으로 구분한다. 국내 연구로는 김미영(1994), 김미경(2003), 김지영(2003) 등이 참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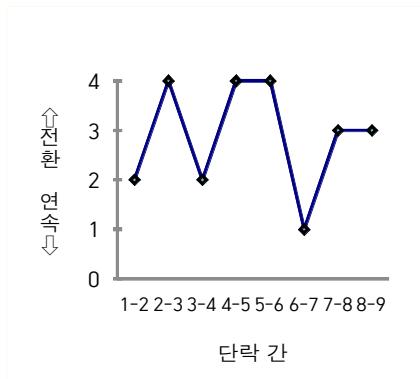


그림 1. 선형관계 문맥 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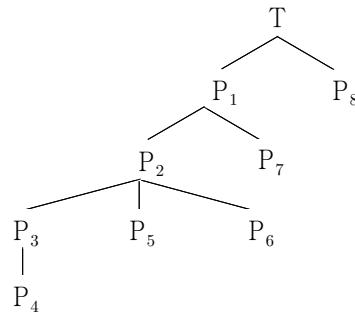


그림 2. 계층관계 문맥 표상

<그림 1>은 텍스트의 문맥을 선형관계로 상정하고, 이를 단락 간 의미연결에 적용한 양상이다. 그림상의 텍스트는 9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단락 간 의미연결의 척도를 중심화 이론을 적용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이 지니는 의미의 변화 양상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텍스트 문맥의 관점에서 다른 텍스트와 비교해서 문맥의 도식화가 논의될 수 있다.

<그림 2>는 텍스트의 문맥을 계층관계로 상정하고 이를 단락 간 의미연결에 적용한 양상이다. 그림은 8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텍스트인데, 단락1과 8이 가장 상위 위계에 놓여 있고, 단락4가 가장 하위 의미 위계에 배치된 양상이다. 이를 통해 의미 위계와 관련된 텍스트 문맥의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가지 도식화 방안은 단락 간 의미연결의 차원을 수평적이고 수직적으로, 즉 선형적이면서도 계층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각각의 방식이 지니는 한계를 서로 보완하면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데 주요한 전략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교육적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연구의 관점에서 대단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문맥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

를 검토하여 교육적으로 환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III.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절에서는 두 가지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다. 두 가지 가설은 학습자들의 텍스트 문맥 인식에 대한 것으로 각각 독자의 관점, 그리고 독자와 필자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이는 문맥이라는 추상적 실체를 독자의 입장과 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표상할 수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 두 표상 방식에는 인식상의 초점 단락이 있을 것이다.
 2. 필자와 독자 간 도식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첫 번째 가설은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문맥 도식화 양상에서 인식상으로 부각되는 단락이 있음과 관련된다. 특히 각 갈래의 자료마다 학습자들이 두 정보관계에서 각각 공통적인 의미 관계로 인식하는 단락이 있을 것이다. 이는 도식화 양상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된 합의 단락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학습자들 간 비슷한 양상의 도식화 양상이 산출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학습자들이 의미의 연속적 흐름이나 위계적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단락은 그 텍스트의 문맥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의미 단서다. 따라서 텍스트 이해의 다양한 부면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문맥상에서 의미의 앞·뒤 흐름에 매개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맥의 구체적 지표로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가령 선형관계의 도식화 양상인 좌표평면 상에서는 급격한 전환에 해당하는 단락이 학습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는 급격한 전환의 자리에 놓이는 단락은 문맥에서 그 내용상의 흐름이 확연하게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단락에 인식의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계층관계에서는 의미의 위계가 가장 상위에 놓이는 단락에 인식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이는 고차적 층위에 놓이는 단락일수록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의미상의 비중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단락은 다수의 단락을 그것의 하위 위계에 거느릴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거시구조의 측면에서 작용하는 단락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필자와 독자 간에 텍스트의 흐름과 관련된 문맥 인식과 그 도식화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기본적으로 필자와 독자가 텍스트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필자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배경지식이나 글을 처리하고 산출하는 능력에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필자의 배경지식이나 글 산출과 관련된 지식이나 능력은 텍스트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필자의 생각과 견해를 반영한 익숙한 인식의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필자, 특히 전문가 수준의 필자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미상의 흐름에 큰 폭을 두면서 글을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단락 간 의미연결 인식에서 의미의 단절이나 전환보다는 연속이나 유보의 과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미 위계상으로는 주제를 구현한 단락을 최상위 의미 위계로 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독자의 관점에서는 단락 간 의미연결의 선형관계 관점에서는 네 가지 중심화 양상이 다양하게 드러날 것으로 상정된다. 필자는 자신의 배경 틀을 바탕으로 글의 전개해 나가는 것이고, 독자는 필자의 텍스트를 자신의 배경 틀을 바탕으로 글을 압축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필자와의 소통 간격 상에서 오는 의미 인식의 격차를 다양하게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선형관계의 도식화에서 필자에 비해 텍스트 내에서 다양한 의미연결 등급을 드러낼 것이다. 이는 독자의 인식 범위 내에서는 텍스트의 익숙한 내용과 낯선 내용들 간의 폭이 필자보다 넓은 것이라는 점이 관련된다. 그리고 계층관계의 도식화에서는 필자의 도식화 양상에 비해 위계 층위가 다소 증가하며, 필자에 비해 최상위 위계에 놓이는 단락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방법

본고는 텍스트 문맥 인식에 대한 시론적 논의이다. 문맥이 국어 교육 현장에서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맥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울러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문맥이 지니는 속성에 기인하거나 교수·학습 방법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전제한다면 문맥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그러한 결과로 도출된 문맥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표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연구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단락 간 의미연결에 대한 인식 양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문맥으로 상정된 양상을 실제로 읽기와 쓰기를 통해 어떻게 인식하고 표상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읽기와 쓰기 과정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장연구조사의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문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그것의 인식 및 표상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

단락 간 의미연결에 대한 인식과 표상의 과정은 매우 복잡한 인지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차적 사고 능력을 요구한다. 문맥의 틀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과정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소수의 학습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인식의 과정과 결과만으로는 문맥에 대한 이론적 합의를 이끌

어 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의 관점에서 실시된다. 다만 일부 학습자들에게서 드러나는 문맥의 인식과 표상의 결과를 비교하는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의 관점이 반영되기도 한다.

본고는 현장조사의 틀에서 두 가지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읽기와 쓰기의 언어 수행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일정한 단락으로 구성된 텍스트에 대한 두 가지 도식화 양상을 학습자들의 읽기 과정을 통해 이끌어 내며 나아가 실제 학습자들이 쓴 텍스트를 바탕으로 모둠 학습의 틀에서 독자와 필자 관점으로 접근한다. 전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연구개관

	연구가설1	연구가설2
언어수행	읽기	쓰기 → 읽기
정보관계	선형관계/계층관계	선형관계/계층관계
도식방식	좌표평면 형상/ 나무-그림 형상	좌표평면 형상/ 나무-그림 형상
참여대상	국어교육과 1학년 외 35명 국어교육과 2학년 외 35명	국어교육과 1학년 외 35명
조사기간	2015.04	2015.10
적용갈래	설명글 및 수필	주장글 및 수필

<표 1>의 언어수행에서 연구가설2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실제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쓰기 영역이 반영되었다. 정보관계와 도식방식은 연계되는데, 선형관계는 좌표평면 형상으로 계층관계는 나무-그림 형상으로 도식화된다. 참여대상은 가설1의 경우는 국어 교육과 1, 2학년 이외에 복수 전공을 하는 일부 학습자들이 포함되었다. 가설1의 경우는 쓰기 과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학년 학습자들로 국한하였다. 조사기간의 경우는 1, 2학기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가설2의 경우에는 한 집단만 참여하였다. 가설1에 비하여 학습자들이 전공 수업의 부담으로 수업 시간을 할애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설2의 경우는 35명 학습자가 작성한 글

을 독자의 관점에서 모두 읽고 두 가지 도식화로 표상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5명씩 모둠별로 진행되었다. 즉 학습자 5명 중 1명이 필자가 되면 4명은 독자가 되는 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에 대해 필자와 독자 관점의 도식화 양상이 비교될 수 있다.

조사 시에 사용된 적용 갈래의 글은 연구가설1의 경우 설명글은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맛집 소개’에 대한 글과 9개 단락으로 구성된 법정 스님의 ‘설해목’이 사용되었다. 두 글 모두 단락의 양상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단락 간 의미연결의 관점에서 글의 문맥을 도식화하기에 적절하다. 연구가설2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흔전동거’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글과 ‘고민’에 대한 수필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읽기 조사 과정에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교육적 의의

이 장에서는 두 가지 연구가설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논의는 가설1과 2로 구분된다. 가설1의 경우는 학습자들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측면을 문맥과 관련시켜 논의했고, 가설2의 경우는 실제 학습자들이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쓰기와 읽기의 측면을 모두 문맥과 관련시켜 논의했다.

1. 연구가설1에 대한 결과 논의

가설1에 대한 사용된 대상 글은 두 편이다. 학습자들이 텍스트 두 편을 읽고 이에 대한 인식의 과정을 두 가지 도식화 방식을 통해 표상하도록 하였다. 문맥은 일종의 이해와 산출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궤적의 단초는 텍스트 내의 여러 언어나 사고 단위가 될 것이다.

글의 도식화 양상에 대한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감안한다면, 그 일치 정도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학습자들로부터 나온 가장 보편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몇 가지 변이 형태를 상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습자들 간의 도식화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는 선형 관계의 도식화 결과인 좌표평면 형상과 계층관계의 결과인 나무-그림 형상으로 구분된다. 먼저 비문학 글의 일종인 ‘맛집 소개’에 대한 원문이다.

표 2. ‘맛집 소개’ 원문

맛집은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삶의 낙을 하나 잃는 것과 같다. 오늘은 ○○에 위치하는 맛있고 특색 있는 고깃집에 대한 소개하려 한다. 이 지역에는 원래부터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유명했는데, 이들을 재료로 한 연탄, 황금막창, 고기요, 서래, 버팔로, 옥돌막창 등의 유명한 맛집이 있다.

먼저, 막창집으로는 황금막창과 옥돌막창, 버팔로가 있다. 황금막창은 이름이 막창인 만큼 막창도 맛있지만 그 외에 양념갈비를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또한 갈빗살과 삼겹살도 맛있다. 또한 계란찜이 리필된다는 것과 음료가 아주 시원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옥돌막창은 삶아 나온 막창이 가장 맛있고, 특히 별미로 김치말이 국수가 있다. 김치말이 국수는 양도 많아서 고기를 먹고 난 후에 나눠 먹으면 아주 좋다. 버팔로는 가게가 조금 작지만 친근한 분위기가 있다. 생막창이 맛있으며, 밑반찬으로 나오는 미역국도 일품이다. 또한 코스로 선택할 수 있어 가격에 있어서도 이득이다.

다음으로 연탄은 ○○의 고깃집 중에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종류별로 모든 고기가 다 맛있다. 갈비가 가장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찾게 되지만 삼겹살과 곱창, 불고기 등 종류가 다양해 원하는 고기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라면도 얼큰하고 추억의 도시락도 별로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맛있다.

고기요는 삼겹살이 일품이며, 살이 두툼해서 포만감이 대단하다. 따라서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집을 추천한다. 삼겹살과 더불어 목살과 갈매기살이 있는데, 이들 역시도 맛있다. 게다가 불판 옆에 계란을 들러줘서 함께 먹으면 맛이 배가 된다. 이 계란은 계속 리필이 가능하며 함께 주는 치즈와 같이 녹여 먹으면 더욱 맛있다.

서래는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대로 된 갈매기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한다. 숯불에 구울 수 있어서 불 맛이 좋고 깔끔하다. 양념이 아닌 생갈매기살이며 살이 두툼해서 오랫동안 불에 의해 익혀 먹어야 한다는 시간적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맛이 좋아서 후회하지는 않는다.

○○에 위치한 다양한 고깃집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맛집을 찾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이기를 바란다. 고기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람들의 입맛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의 정보는 주관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고기 종류와 서비스에 따라 골라 한번 방문하고 그 맛을 평가해 보면 좋을 듯하다.

이 글은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설명글이라고 할 수 있다. 맛집에 대한 소개를 평이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열형으로 전개하고 있다. 연구 가설1과 관련시켜 본다면, 먼저 선형관계에서는 3, 4 단락 간에 고깃집 종류의 전환이 있고 6과 7단락의 경우는 앞선 내용상의 병렬에서 갑작스런 다른 내용으로의 마무리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인지적으로 초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계층관계에서는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각각 글 전체의 소개와 마무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상위 인지 단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3단락은 2단락의 일종의 구체화 단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이 특징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2단락이 3단락의 상위 단락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2단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식상의 차이가 있을 듯하다.

<표 2>의 글에 대한 학습자들의 문맥의 도식화 양상은 선형관계와 계층관계의 합치도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선형관계의 도식화에서는 그 경우의 수가 많고 학습자들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계층관계에서는 학습자들 간에 도식화 결과가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두 관계에서 인식상의 초점 단락은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문맥의 두 가지 도식화에서 부각된 몇몇 양상을 초점 단락과 관련시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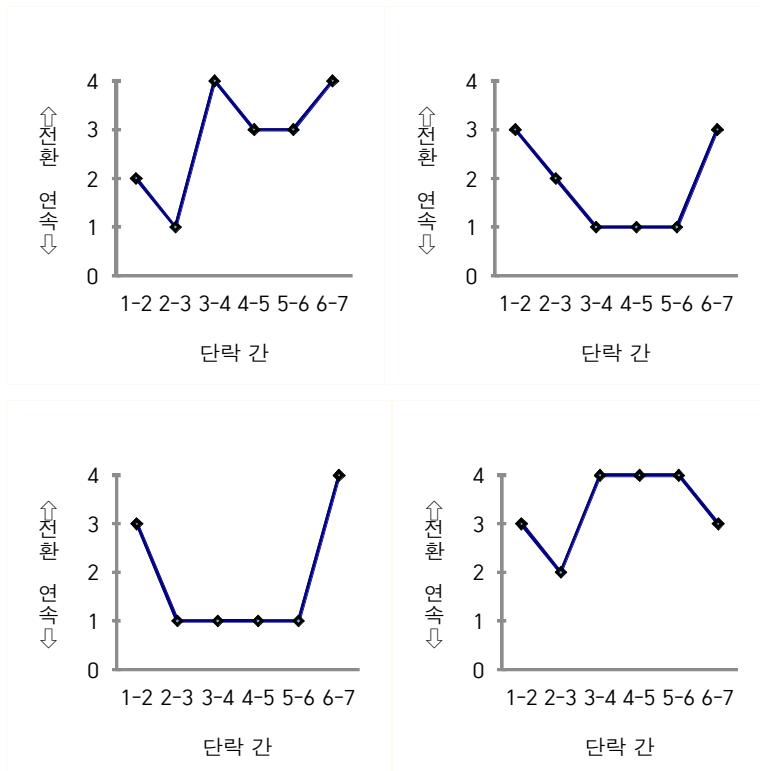


그림 3. 선형관계 표상 양상

선형관계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림 3> 유형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3~4, 4~5, 5~6단락 간의 의미연결 흐름에 대한 인식의 틀이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이들 각 단락 간의 흐름을 연속으로 보는 학습자들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의미로의 전환으로 인식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이는 이들 단락 간을 내용상의 새로운 전환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단락이 하나의 독립된 거시구조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연속의 과정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2단락에 종속될 수 있는 하위 단위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요약 과정에서 이들 단락이 어떻

게 삭제되고 통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6~7단락 간에는 의미의 전환 쪽에 인식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어 7단락이 인식상의 초점 단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1~2 단락 간에도 차이는 있지만 의미의 전환 쪽으로 인식의 흐름이 모이는 것으로 보여 1단락이 초점 단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단락 간 중심화 등급 부여에서 일부 단락 간에 차이는 있지만 인식상의 초점 단락으로 상정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학습자들 간에 중심화 부여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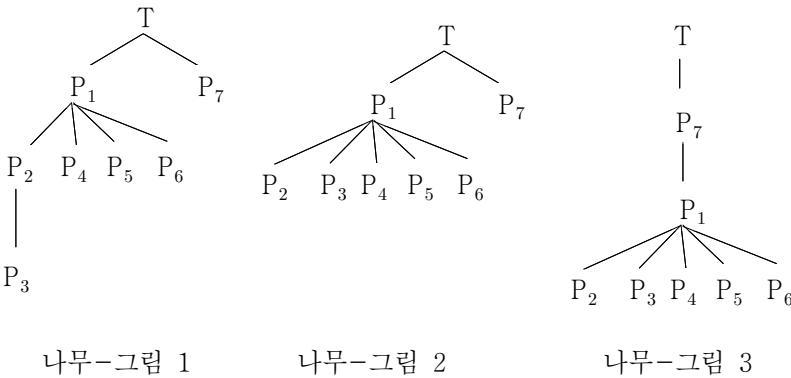


그림 4. 계층관계 표상 양상

계층관계의 도식화 표상인 나무-그림은 <그림 4>와 같이 3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왔다. 물론 이 외에도 소수의 유형들이 학습자들로부터 산출되었지만 유의미할 정도로 나오지 않아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35명의 학습자들로부터 나온 나무-그림 형상은 1과 2가 60~70% 정도를 차지하였다. 3번의 경우는 10% 정도로 나왔다. 따라서 학습자들 간에 인식의 합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단락 1과 7이 가장 상위에 놓임으로써 텍스트의 초점 단락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수의 형상으로 산출되었던 나무-그림에서도 이는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계층관계를 문맥의 형상으로 도식화한 나무-그림에서는 가설1에서 제기한 문제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수필글에 대한 인식 양상이다. 먼저 ‘설해목’ 원문은 <표 3>과 같다.

표 3. ‘설해목’ 원문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老僧)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 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노승과 그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왔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 물을 떠다 주는 것이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스님은 한 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 들어주는 데 크게 감동한 것이었다.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백 천 마디 좋은 말보다는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이제는 가 버리고 안 계신 노사(老師)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내게는 생생히 살아 있는 노사의 상(像)이다.

산에서 살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이고 만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깊은 밤, 이 골짜 저 골짜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들려올 때, 우리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에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알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사이밧티이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殺人鬼) 앙굴리마알라를 귀의(歸依)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神通力)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慈悲)였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닷가의 조약들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인 것을.

위의 글은 전반부는 개인적 일화로 후반부는 주제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된 텍스트이다. 5단락이 그 경계지점을 이루고 있어 인식상의 초점 단락으로 부각될 가능성성이 높다. 다만 뒷부분을 구성하는 비유적 표현들의 단락이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식할지가 관건이 된다. 먼저 선형관계에 대한 도식화 양상이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집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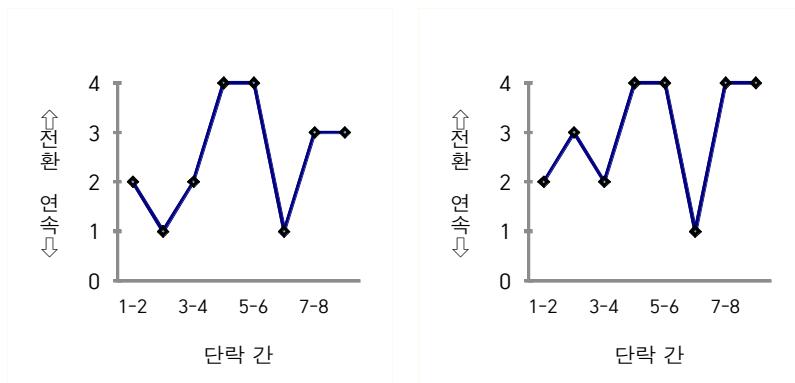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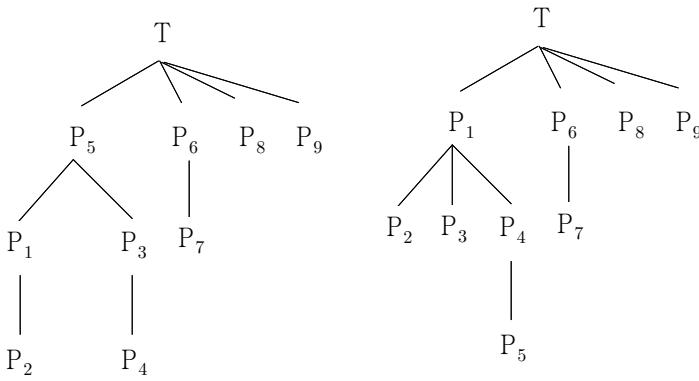


그림 5. 선형관계로 상정된 문맥 표상

학습자들의 선형관계의 도식화 결과는 크게 <그림 5>와 같다. 대다수 학습자들이 왼쪽이나 오른쪽 형태에서 약간씩의 차이만 있을 뿐 80~90% 정도가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났다. 이 차이는 2~3단락, 7~8단락, 8~9단락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령 2~3단락을 연속보다는 완만한 전환으로 보거나 7~8과 8~9단락을 완만한 전환보다는 급격한 전환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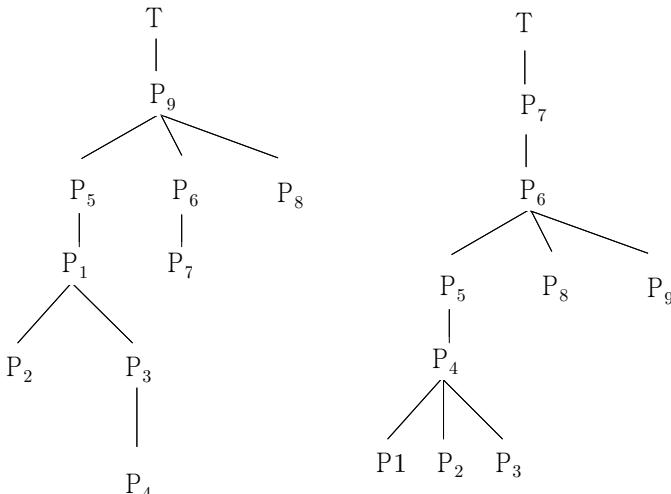
다만 글 전체의 내용 전개상 7~8단락, 8~9단락은 글 전체의 주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이 글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 주고 있지만, 급격한 내용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단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그림 5>에서 왼쪽 형태가 조금 더 바람직한 선형관계의 도식화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두 그림에서 5단락이 주요한 인식 전환의 초점 단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 대한 계층관계의 도식화 양상은 선형관계의 도식화보다는 학습자들 간에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즉 전체글의 단락을 의미 위계상으로 재구성하면서 산출된 문맥이 학습자들 간에 다른 양상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결과이다. 하지만 몇몇 단락이 초점화되어 분명하게 의미 위계상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네 가지 정도로 학습자들의 도식화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나무-그림 1

나무-그림 2



나무-그림 3

나무-그림 4

그림 6. 계층관계로 상정된 문맥 표상

<그림 6>에서와 같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압축될 수 있다. 나무-그림1 유형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대략 60~7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물론 이 그림에서 단락1과 2, 3, 4의 위계 설정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였는데, 가령 이 네 단락이 병렬적으로 놓이는 경우도 있었고 1과 2는 대등으로, 그리고 3과 4는 상·하 관계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70~80% 정도가 그림1 및 그것의 변이 형태가 된다. 즉 5단락이 앞선 일화들에 대한 주요한 초점 단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6, 8, 9단락이 주제를 비유적으로 전달하는 주요한 초점 단락으로 인식되고 있다.

나무-그림2의 유형도 대략 10% 내외에서 그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 경우는 이 글을 크게 편지, 산, 살인귀, 조약돌로 구분해서 그 위계를 설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단락의 더벅머리 학생의 아버지가 주신 편지가 이하의 5단락까지를 포함하는 상위 단락으로 설정된다. 이 경우는 학습자들이 전체글을 재구성하기보다는 다소 선형적인 관점에서 평면적으로 읽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나무-그림3의 유형도 앞의 두 유형보다 비율상으로는 낮지만 제법 다수의 학습자들에게서 산출된 유형이다. 대상 글의 마지막 단락을 가장 상위 층위에 놓은 형태인데, 이 단락을 학습자들이 압축과 생략을 통해 주제 의식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는 단락으로 성급하게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단락은 전체글의 주제의식을 비유적으로 일부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이 단락을 전체글의 단락을 포괄하는 최상위 단락으로 놓는 것은 이 글을 의미 위계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어 드러난 오독으로 판단된다.

나무-그림4의 유형은 극히 일부 학습자에게서 드러난 유형이다. 7번째 단락을 최상위에 놓은 이유는 아마도 글의 제목에 있는 듯하다. 설해목이라는 제목과 관련된 의미가 7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식화 결과의 의의를 일부 인정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필자의 창작 동기를 감안한다면 과연 7단락이 최상위 단락으로 놓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창작 동기의 우선순위가 1~5단락에 진술된 일화에 있지 자연에서 오는 깨달음에 우선적으로 있었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목이 지니는 표면적 의미를

중심으로 전체 단락의 의미 위계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나무-그림 양상이라고 판단된다.

2. 연구가설2에 대한 결과 논의

가설2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직접 쓴 텍스트를 대상으로 5명으로 구성된 모둠 간에 대상 텍스트를 서로 돌려 읽으면서 문맥의 도식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한 텍스트에 대해 필자 관점의 문맥 표상과 4명으로 구성된 독자 관점의 문맥 표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필자와 독자 관점의 문맥 도식화의 결과가 비교될 수 있다.

참여대상자는 국어교육과 1학년 35명씩인데, 총 7개의 모둠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였다. 글은 문학과 비문학으로 구분하여 문학의 경우는 자신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한 문제를 수필 형식으로, 비문학의 경우는 ‘혼전 동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인 주장글로 전술하도록 하였다. 한 편의 글은 대략 A4 한 면이나 두 면 정도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단락의 개수는 6~10개 정도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이 비문학과 문학 갈래로 구분하여 논의된다. ‘독1~독4’까지는 독자의 관점에서 도식화한 결과를 필자와 비교하여 그 일치 정도를 ‘○’, ‘△’, ‘×’로 구분하여 3단계 척도로 평가한 것이다. 도식화 결과에 대한 평가 등급화 척도가 너무 많으면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치 정도를 3단계 정도로 감안하였다. 대략 일치 하면 ‘○’로, 단락 간 중심화의 등급 및 단락 간 위계 층위와 위치가 절반 정도 일치하면 ‘△’로, 그 외의 경우는 ‘×’로 상정하였다.⁴

4 평가 기준을 필자의 도식화 결과물로 잡은 것은 학습자들의 수준을 감안한 것이고, 그리고 필자 자신의 글에 대한 도식화 결과이기 때문에 필자의 기억 궤적이 가장 잘 반영되었을 것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가 구성한 도식화 결과가 가장 적절한 양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필자와의 개별적 상담을 통해 그러한 도식화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표 4. 쓰기와 읽기에서의 맥락 도식화 결과

\	비문학								문학							
	좌표평면 형상				나무-그림 형상				좌표평면 형상				나무-그림 형상			
	독1	독2	독3	독4	독1	독2	독3	독4	독1	독2	독3	독4	독1	독2	독3	독4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	○	△	△	△	○	○	△	×	○	△	△	○	△	○

직관적으로 비문학에서 ‘나무-그림’ 형상의 일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문학의 경우는 ‘좌표평면’ 형상에서 일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다. 원 자료에 대한 결과만으로는 필자와 독자 간의 일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재구성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재구성된 도식화 결과

조사 갈래	도식화 방식	일치 정도(횟수)	일치 비율(%)
비문학	좌표평면 형상	○	51
		△	61
		×	28
	나무-그림 형상	○	76
		△	44
		×	20
문학	좌표평면 형상	○	31
		△	53
		×	56
	나무-그림 형상	○	42
		△	57
		×	41

가설2에서는 필자와 독자 간에 불일치되는 면이 많이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표 5>에서 드러나듯이 갈래와 도식화 형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치나 준일치 비율이 높게 드러났다.⁵ 가령 비문학 영역은 필자와 독자의 일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다만 두 갈래 모두에서 좌표평면 형상보다는 나무-그림의 형상에 대한 일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도식화의 방식에 따라 그 일치 비율에서 차이가 있지만 텍스트의 문맥을 학습자들 간에 일정 부분 합의된 인식 양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조사 결과는 상당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문맥에 대한 이러한 도식화의 과정을 몇몇 학습자들의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흔전동거’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다룬 비문학 글로, 15번 학습자에 해당된다. 원문은 <표 6>과 같다.

5 갈래별 도식화 방식에 따른 통계 검정 결과는 준일치 비율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7.10, 8.45, 2.37, 4.90으로 결과값이 나와 모두 경계값 1.96을 넘어선다. 따라서 결과값이 모두 기각된다. 이는 필자와 독자의 도식화 결과가 비슷한 양상으로 도출되었음을 말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6. 15번 학습자의 비문학 글 원문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 필자는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필자의 친구의 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연상의 남자와 동거를 했고, 관계 전 치밀하지 못했던 피임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필자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벌써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는 소식은 상당히 쇼킹하게 다가왔고,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도 요즘엔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적어도 필자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반박해보고자 한다.

첫째,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성인간호학회지 제22권 5호에 실린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경험과 외로움 및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혼전 동거는 거의 대부분 혼전 성관계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낙태, 입양 등)가 상당하다고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혼전동거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부족하다. 결혼은 두 사람이 동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국가의 공식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 후에 이혼할 때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동거는 그렇지 않다. 2014년 2월 3일자 KBS 뉴스라인에서 혼전동거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었는데,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에서는 이미 동거형태를 결혼과 동등한 합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대한민국이 서서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법률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주위의 인식이 좋지 않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그녀는 실제로 많은 친구를 잃었다고 한다. 혼전임신 사실을 친구들에게 밝혔을 때 하나 둘씩 외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물며 낳고 길러준 부모님과도 의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구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까지 개방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가 가벼워질 수 있다. 혼전동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 근거로 한 번 살아보고 상대방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를 굳힐 수 있어서라고 한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에게 맞추어간다는 육직한 동거의 의미가 많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 번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4개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위의 근거들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혼전동거를 받아들이기엔 사회적, 법적, 그리고 시민 의식적 등으로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에 혼전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법적 보호가 보장이 되며,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형성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총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주장글이다. 혼전동거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 대한 필자와 독자의 문맥 도식화 결과는 좌표평면 형상과 나무-그림 형상이 필자와 독자의 관점에서 모두 일치하였다. 정확하게 일치한 경우는 이 학습자의 글에 대한 표상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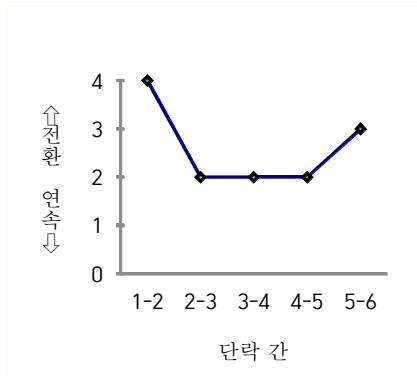


그림 7. 좌표평면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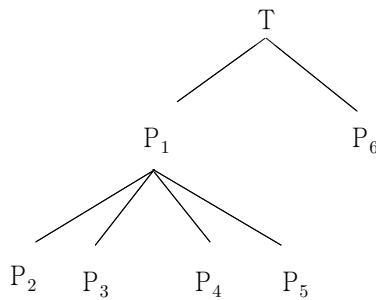


그림 8. 나무-그림 형상

두 그림에 드러난 바와 같이 좌표평면 형상의 경우는 서론과 본론으로 이어지는 단락에서 급격한 전환으로 본론 단락 간에는 내용 유지의 틀에서 중심화 전이가 매겨졌다. 그리고 본론과 결론 단락 간에는 완만한 전이로 중심화 전이가 등급화되어 드러났다. 본론 단락 간을 내용상의 급격한 전환이나 완만한 전환으로 중심화 전이를 볼 수 있을 듯한데, 실제 5명 학습자들의 도식화 결과는 유사한 내용 전개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무-그림 형상에서는 먼저 단락1과 6이 동시에 최상위 위계에 놓임으로써 가설2에서 상정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전체적인 단락 재구성 양상에서는 나열 형식으로 진술된 본론 성격의 단락들인 $P_2 \sim P_5$ 가 서론 단락인 P_1 에 대한 근거를 진술하는 하위 단락으로 위계화되었다. 결론으로 상정된 P_6 단락은 서론 단락과 같은 위계로 설정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조의 주장글로 볼 수 있다. 다음은 15번 학습자의 문학 글 원문이다.

표 7. 15번 학습자 문학 글 원문

기억이 온전한 시절부터, 나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이였다. 버스의 하차 벨을 누르는 당연한 행위가 눈치 보이고 부끄러워 사람들이 우르르 내릴 때 함께 내려서는 한참을 걸어서 집에 가곤했다.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을 보며 저 빛이 마치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 같아, 잡아먹힐까 두려워 후다닥 고개를 숙이며 살았었다. 무엇이 어린 나의 자존감을 옵파먹어 이토록 움츠러들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고 명쾌하게 답이 나와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다.

내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었다. 흔히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모욕을 주려 사용하는 여려 비속어들을 나는 아버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컸다. 그것이 나를 욕보이는 속된 말인 줄 몰라서 내 이름 석자 앞에 욕설이 수식어처럼 붙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도 못했다. 익숙하게 들어온 말들이 ‘나쁜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나는 나의 아버지가 정상이 아닌 것에서 파생된 고민을 안고 살아야 했다.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엄마께 천원을 더 받아내 불량식품을 사 먹을지 고민하는 동안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표정을 지으며 있어야 아버지의 폭언을 피할 수 있는지 고민하곤 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아버지의 말처럼 쓸모없고 빨리 사라져야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웠다. 사실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고,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헛별 한 줌 달지 않는 차가운 음지에 웅크려 살게 될까봐 걱정했었다. 내 고민은 십대의 그것 치고는 울음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다.

내 고민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고민이었다. 타인보다 밑바닥에서 산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고, 자신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이 나를 멸시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내 상처를 드러낼 수 없었다. 말하지 않으니 위로 받을 수 없었고, 치유 받을 곳을 잊은 나는 속수무책으로 병 들어갔다.

비참한 고민거리들로 가득 채워진 나의 공간에 바늘구멍 같은 돌파구나 생겨난 것은 고등학생 때의 일이다. 십대의 끝자락에 나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 나처럼 가정 폭력으로 고민하던 친구였다. 거짓말 같게도, 나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시발점으로 스스로를 덜 가엽게 여기는 법을 터득해갔다. 그토록 갈구하던 치유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나와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의 존재로 나는 위안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고통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치유이자 위로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존재이다. 고통의 유예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지쳐갈 때 작은 위로가 되는 것이 동병상련의 정 또는 나 같은 혹은 나보다 괴로운 사람의 존재라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야박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깎아 내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속으로 굽어가는 것보다는 타인을 동정하고 가엽게 여겨주며 그 존재에 사소한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더 나은 처사임은 분명하다.

뚜렷한 해결책이나 벗어날 방법이 없는 고민은 그것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 어딘가에서 나와 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같은 고민과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위로받고, 또 그들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면 된다. 그것이 고민으로 가득 찬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인생의 한 가지 노하우가 아닐까.

<표 7>은 총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개인적 일화가 바탕이 된 수필류의 글이다. 비유적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고 자신의 고민을

생생한 일화를 바탕으로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글은 앞선 비문학 글에 비해 단락 간 중심화의 전이나 의미 위계화의 도식화에서 다른 유형들이 일부 나왔다. 먼저 선형관계의 도식화 유형이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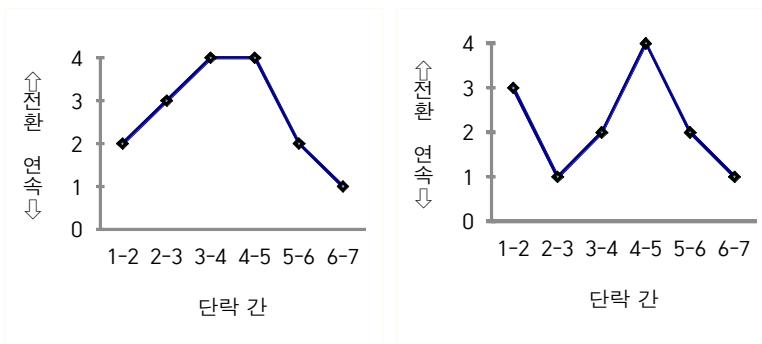


그림 9. 15번 학습자 글에 대한 좌표평면 형상

<그림 9>에서 좌·우 차이는 단락 2~3과 3~4간의 인식에 있다. 왼쪽이 필자가 제시한 유형이고 오른쪽이 일부 독자 학습자들로부터 나온 유형이다. 필자는 2~4단락 간을 낮선 내용으로 인식하면서 전개하고 있지만 독자들은 이를 익숙한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이는 가설2에서 상정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이기도 한다. 계층관계의 도식화 양상도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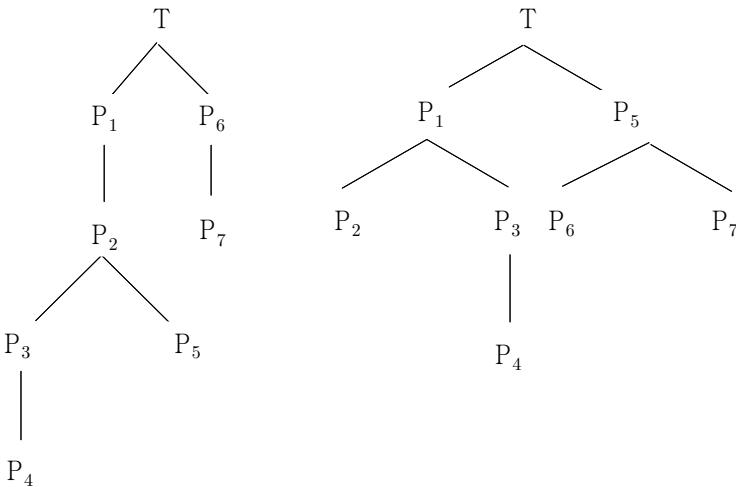


그림 10. 15번 학습자 글에 대한 나무-그림 형상

먼저 가설2에서 제기한 주제 단락 단독의 최상위 위계화에 대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전체적인 단락 재구성 양상에서는 왼쪽 형태가 필자가 제시한 형태인데, 3명의 독자도 이 형태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 글의 계층관계를 나무-그림으로 도식화하였다. 오른쪽 형태는 1명의 학습자가 5단락을 고민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다루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주제의 단락으로 상정하여 6과 7단락을 하위 단락으로 구성한 것이다.

오른쪽 형태의 학습자는 5단락과 6단락의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단락은 2단락의 연계선상에서 이해되는데, 특히 시점상으로도 과거의 일화에 바탕을 두고 구성된 단락이다. 그에 비해 6단락은 그러한 일화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5단락을 6과 7단락으로 합쳐서 도식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조사 결과에서는 가설2에서 상정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자와 독자 간의 문맥 도식화에 결과가 일부 합

의되는 결과로 도출되었고, 차이로 제기된 필자와 독자의 의미 폭과 의미 위계상에서의 필자와 독자의 최상위 위계 단락의 설정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맥이라는 추상적 실체를 독자나 필자의 머릿속 흔적이나 자의적인 구성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텍스트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과정에는 의미의 일정한 흐름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이러한 흐름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며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어교육에서 문맥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2. 교육적 의의

글을 읽고 쓰는 방식은 다양하다. 아울러 그 방식에 따라 문맥도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맥 형성의 방식으로 단락 간 의미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이를 세부적으로 선형관계와 계층관계로 구분하였다. 선형관계는 단락 간을 수평적, 순차적으로 계층관계는 수직적, 위계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문맥은 텍스트 이해와 산출 과정에 수반되는 기억상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궤적은 독자나 필자의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저장되고 활용되는 흔적으로 남는다. 따라서 문맥은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산출했는지를 표면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매개 수단이 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을 학습자들의 읽기와 쓰기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로부터 두 가지 교육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두 정보관계의 도식화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단락이 있었다. 이 단락은 인식상에서 초점화되어 두 정보관계를 도식화하는 데 주요한 단서로 작용하였다. 선형관계의 도식화에서는 내용상의 급격한 전이를 이루는 단락이 인식상의 초점 단락으로 부각되었고, 계층관계의 도식화에서는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단락이 그러하였다.

아울러 이는 문맥을 구체화하고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공통된 인식 양상을 이끌어 내는 데 기초가 되었다. 그간 국어교육 현장에서 그 중요성만 강조되었을 뿐 정작 교수·학습 과정에서 문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이나 대안이 부재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본고의 조사 결과는 문맥 교육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의가 있다.

문맥이라는 추상적 실체가 독자들 간에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학습자들 간에 동일한 텍스트를 두고 생성된 텍스트의 문맥의 도식화 양상은 어느 정도의 인식상의 합의를 보여 주었고, 이는 문맥이라는 대상도 학습자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서를 던져 주면 구체적으로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문맥은 필자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주요한 소통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문맥은 필자와 독자가 동일 텍스트를 두고, 이를 어떻게 산출하고 처리해 가는지를 참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즉 문맥이라는 추상적 실체를 필자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 상황을 매개하는 가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어교육 현장에서 영역 간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통합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만 부각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문맥 중심의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은 국어교육 현장의 읽기와 쓰기 교육에서 시도해 볼 만한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문맥은 이른바 글의 추상적 흐름이다. 하지만 텍스트를 독자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개념화했는지를 가장 명징하게 살펴볼 수 있고 아울러 필자가 어떻게 텍스트를 전개해 나갔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본고는 두 가지 정보관계의 도식화를 통

해 이러한 추상적인 문제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V. 마무리

본고는 국어교육 현장에서 중요시되어 왔지만 정작 제대로 다루지 못한 문맥을 현장조사연구의 틀에서 논의하였다. 두 가지 연구가설을 상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여 문맥의 구체적 실체를 파악하고 교육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문맥에 대한 시론적 논의임을 감안하여 몇몇 연구과정상의 한계가 따랐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읽기 과정에서 문맥을 형성하는 데 초점이 되는 단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는 초점 단락이 학습자들 간 문맥 도식화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조사 결과상으로 학습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합의된 초점 단락이 산출되었고, 이는 문맥을 도식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문맥 형성과 관련된 필자와 독자 간의 소통 문제였다. 학습자 필자의 글을 대상으로 문맥을 도식화했는데, 길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필자와 독자 간에 공통된 문맥의 도식화가 조사 결과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맥의 교육적 실효성에 대한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지만 본고는 문맥에 대한 시론적 논의임을 감안하여, 향후 보다 정밀하고 체계화된 문맥 도식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남겼다. 아울러 문맥의 구체적 실체를 밝혀내는 데 보다 다양한 갈래의 텍스트와 수준의 학습자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남긴다.

* 본 논문은 2016.02.10. 투고되었으며, 2016.02.14. 심사가 시작되어 2016.03.02.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과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과부 교시 2015-74호, 별책 5).
- 김미경(2003), 「중심화이론에서 본 한국어 논항의 생략현상」, 『언어』 28.1, 한국언어학회, 29-49.
- 김미영(1994), 「한국어 담화의 중심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슬옹(2012), 『맥락으로 통합되는 국어교육의 길찾기』, 동국대학교 출판부, 27-53.
- 김지영(2003), 「Centering Theory and Pronouns in Discourse」,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정(2009), 「읽기의 맥락과 맥락 읽기」, 『독서연구』 21, 한국독서학회, 33-79.
- 박수자(2009), 「문맥의 특성과 읽기 지도」, 『한국초등국어교육』 39,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57-188.
- 박정진·이형래(2009), 「읽기 교육에서의 콘텍스트: 의미와 적용」, 『독서연구』 21, 한국독서학회, 9-32.
- 이재기(2006)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 고찰」,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99-128.
- 최명원(2002), 「언어와 언어사용에 있어서 맥락의 의미」, 『독일어문학』 19, 독일어문학회, 477-495.
- Gernsbacher, M. A. & Givon, T. (1995). *Coherence in Spontaneous Text*. John Benjamins.
- Kintsch, W. (1993). Information Accretion and Reduction in Text Processing: Inference. *Discourse Processes*, Vol 16(1), 193-202.
- _____(1998). *Comprehen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ijk, T. A. (1980). *Macrostructures*. Lawrence Erlbaum.
- Walker, Marilyn A., Joshi, Aravind K., and Prince, Ellen F. (1998).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Calrendon press.

초록

문맥 인식과 표상 방식에 대한 사례 연구

—단락 중심의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서종훈

본고는 국어교육 현장에서 중요시되어 왔지만 정작 제대로 다루지 못한 문맥을 현장조사연구의 틀에서 논의하였다. 두 가지 연구가설을 상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여 문맥의 구체적 실체를 파악하고 교육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읽기 과정에서 문맥을 형성하는 데 초점이 되는 단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상으로 학습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합의된 초점 단락이 산출되었고, 이는 문맥을 도식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문맥 형성과 관련된 필자와 독자 간의 소통 문제였다. 학습자 필자의 글을 대상으로 문맥을 도식화했는데, 갈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필자와 독자 간에 공통된 문맥의 도식화가 조사 결과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맥의 교육적 실효성에 대한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지만 본고는 문맥에 대한 시론적 논의임을 감안하여, 향후 보다 정밀하고 체계화된 문맥 도식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남겼다. 두 가지 정보관계의 도식화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관계의 수립과 문맥에의 수용이 요구된다. 아울러 문맥의 구체적 실체를 밝혀내는 데 보다 다양한 갈래의 텍스트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남긴다.

핵심어 문맥, 선형관계, 계층관계, 좌표평면 형상, 나무-그림 형상

ABSTRACT

A Case Study on Co-text Cognition and Representation Types

—Focusing on Reading and Writing Paragraphs

Suh Jonghoon

Co-text is different from context. It is a internal aspect of text. But context is a external aspect of text. Generally co-text is called as a text-flow. It is very abstract concept. It has been ambiguously treated with at scene of school.

Co-text may be kind of rhythm in text. Especially it distributes the whole range of text. Between the words, sentences, paragraphs, and rhetoric unit are distributed. So the range is not easily decided. The problems cause the understanding difficulties of text.

This paper is focused to concrete abstract co-text. Two methods are used in actualization. First, cognition and representation in linear relation of text are treated by Centering theory. Centering theory is about the cohesion. Especially it is about how pronoun is restored between sentences. Also the representation is exposed by the rectangular coordinate system.

Second, tree-diagram is used to exposed hierachial relation between paragraphs. This method actualizes cognition and representation in hierachial relation of text. So the co-text is represented by horizontal and vertical relation.

KEYWORDS co-text, linear relation, hierarchical relation, tree-diagram, rectangular-diagram